韓, 성장률·수출 큰 폭 개선… 금리 막판 변수 '소비자물가'

3분기 성장률 예상치 웃돌아
10월 수출 전년동기比 93.7%↑
한은, 예고했던 성장지표 확인
물가흐름·금융안정 상황 점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 예상을 웃돈 데 이어 10월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당시 추가 확인을 예고했던 성장지표가 나온 가운데 오는 3일 발표되는 10월 소비자물가가 다음 금리 판단의 주요 시험대로 떠올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52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3.7% 증가했다. 추석 연휴 시점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20일에서 올해 22일로 늘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2억4000만달러로 76.1%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59.4%,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34% 늘었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7·8월 두 차례 인상의 파급 효과와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신 총재는 당시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8월 전망 때보다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좀 더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로, 8월 전망 때 예상한 3분기 성장률 0.3%를 웃돌았다. 민간소비가 감소했지만 투자와 정부소비가 늘면서 내수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렸다.

다만 가계 소비의 회복 강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줄었다. 한은은 자동차 파업에 따른 인도 지연과 주식 거래 감소에 따른 금융서비스 소비 축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두 요인이 없었다면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지금까지 민간 소비 개선세가 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고령화도 소비 회복의 구조적 제약으로 짚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9월 산업활동에서는 전월 대비 생산이 3.0%, 소매판매가 3.6% 증가해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자동차 생산·판매 회복과 함께 전월의 일시적 감소 요인이 완화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가 역시 전체 상승률의 등락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의 3.1%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8월 통신요금 감면으로 올해 8월 상승률이 높아졌던 기저효과가 9월에 사라진 영향이 컸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이를 감안하면 9월 물가상승 압력이 8월보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9월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였다. 개인서비스와 공업제품 가격도 각각 3.5%, 4.2% 올랐다. 다만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연간 상승률과 단기 움직임이 다른 만큼 물가압력의 지속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 수출입 자료에서도 비용 부담은 확인됐다. 원유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보다 6.3% 줄었지만 달러 표시 수입단가가 62.0% 오르면서 수입금액은 51.9% 증가했다. 이런 원유 매입비용 부담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전이될지도 변수다.

물가의 상·하방 요인도 공존한다. 한은은 환율 하락의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전이, 수요 측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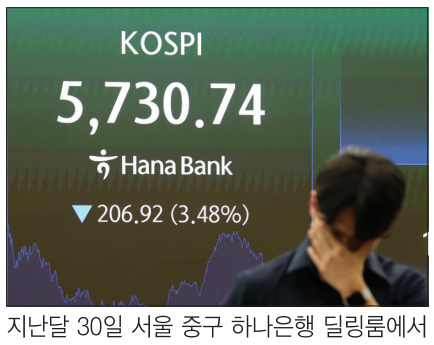
한은이 주목하는 것은 물가압력이 내년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서는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인 2.3%, 2.5%를 각각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소비 회복 속도와 앞선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대외변수도 고려할 대상이다. 한은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흔들리는 코스피… "회복 제한" vs "저평가 영역"

'AI 버블' 공포 영향… 한 달새 16%↓
기업 수익성 지속·외국인 수급 관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주가가 하루하루 불안한 흐름이라 지금 들어가기 무서워요."

"용기 내서 매수했는데 인공지능(AI)발 신용(부채 리스크)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떡하죠?"

개미들이 '인공지능(AI) 버블' 공포에 휩싸였다.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들의 화려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잠시 오르다가 AI 버블론이 불거질 때마다 공포에 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반등 여부가 미국 AI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된다는 게 전제다.

◆ 반도체 이익 지속성 주목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16.19% 하락했다. 월간 기준 역대 일곱 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부진 때문이다. 지난달 각각 16.20%, 20.15% 하락했다.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무색할 정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107조4405억원, 83조333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우려하는 핵심은 AI가 미래 산업 지형을 흔들 '게임 체인저'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다. AI 산업이 현재 투자 규모와 차입 부담을 정당화할 만큼 빠르게,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산지브 라나 CLSA증권 코리아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수요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수익 변동성이 컸던 과거를 고려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롭 리 아몬트파트너스 매니징 파트너는 블룸버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규모보다 지속성"이라며 시장의 관심이 한 분기의 실적보다 2027년과 2028년 전망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모리 업체들은 기우라고 평가한다. 그 근거로 장기 공급계약을 내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 14곳과 LTA를 체결했으며, 확보한 계약 물량은 2027~2028년 전체 생산 능력의 50% 이상이다. 선단 공정의 기술 난도와 신규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회사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장기계약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KB증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에 10년 장기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0년 초장기 공급계약은 메모리 산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 이익 가시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최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특별강연에서 "AI 혁명은 제가 볼 때 많이 왔어도 10~20% 정도 온 것 같다"며 제한적인 메모리 공급 능력과 향후 수요 확대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미들은 장기 계약이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경기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분위기다. 10월 들어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5월 말 고점보다 약 70% 감소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월 평균 130조4400억원에서 지난달 94조8773억원으로 약 35조원(27%) 줄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의 '팔자'(18조6756억원) 매물을 받아줄 국내 투자자 자금이 줄어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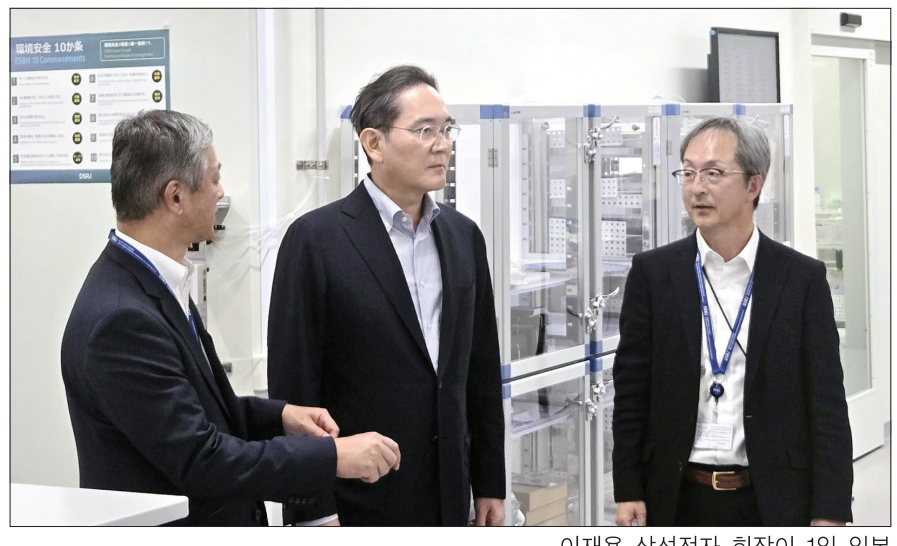
◆코스피 신중 vs 아직 싸다

코스피가 AI 거품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JP모건은 저가 매수세가 약해지고 자사주 매입 효과도 줄어 이번 AI주 조정이 앞선 하락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대만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했다. AI 하드웨어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져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UBS 역시 최근 반도체주 하락을 AI 투자 사이클의 붕괴라기보다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를 낮추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만2000에서 9000으로 25% 낮췄다. 코스피가 올 6월 고점 대비 35% 넘게 떨어지자 기업 가치를 더 보수적으로 따지기로 한 것이다.

반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투자 우려가 지나치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1만~1만1000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각각 67만원, 470만원을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가 최대 9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는 역사적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반도체 연구거점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연구거점(Advanced Package Lab·APL)에서 카와히라 히로이치 삼성전자 DS 리서치 재팬 연구소장(부사장, 이 회장 왼쪽), 카리야 다카시 APL 랩장(상무) 등과 함께 패키징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해킹 배후 北 지목… 트럼프 방침 변화 예상

》1면 '바이낸스 코인 탈취…'서 계속

앞서 미 연준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스탠스를 유지했다. 가상자산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리 상승기에 기격이 하락하며, 금리 인하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

최근 주요 테크주의 약세도 투심 악화에 한몫했다. 가상자산은 주요 빅테크 주식과 높은 동조화성(커플링) 성향을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가격 또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북 관계 악화 가능성도

한편,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 범죄에 북한이 연루된 만큼 트럼프의 방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면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어두워졌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모른다.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We are looking into it). 다만 바이낸스는 피해 금액을 되찾을 것이라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자회견이 FBI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진행된 만큼, 트럼프의 방침 변화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안승진기자 asj231@